

죽음준비교육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 대구지역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Death Orientation and Suicidal Ideation

- With a Focus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in Daegu, Korea -

장경은*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Chang, Kyung-Eun

Dept. of Social Welfare, Daegu Heath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focusing on death orient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Participation in this study was voluntar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totaling fourteen participants in each group. In exploring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the experimental group was subjected to a total of seven independent sessions dealing with death education over a period of four weeks.

As a result of the death education, scores of death orient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control group.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in the experimental group demonstrated greater comfort with the concept of death, as well as death being the prolongation of one life and new hope for an ensuing life. The experimental group demonstrated a greater appreciation for life, more confidence in setting future goals for their lives, and an awareness of, and ability to deal positively with suicidal tendencies in themselves and others. This research demonstrated a strong practical benefit associated with death education and suicidal ideation awareness.

Keywords: death education, college students majoring social welfare, death orientation, suicidal ideation.

I. 서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죽음은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다른 영역으로 여기고 나의 죽음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

다. 또한 죽음을 삶의 종말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죽음을 회피하거나 금기시하려고 한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 규정하면서 삶의 최종목적지는 죽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고 인간

[†] 이 연구는 2011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Chang, Kyung Eun.

Tel: 053-320-4502, Fax: 053-320-1460

Email: ke-chang@dhc.ac.kr

의 본질이 무엇이나를 묻는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Kim, 2002).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와주는 죽음준비교육은 죽음 그 자체가 무엇이나를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Feifel은 ‘죽음인식운동(death awareness movement)’은 넓은 의미에서 ‘죽음교육’과 동의어로 여긴다고 하였다(Wass, 2004). Puolimatka와 Solasaari(2006)는 죽음준비교육을 미래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고, 죽음에 직면하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교육이라 하였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과정과 죽음의 현상을 다루는 형식적·제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도로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고 죽음이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Kee, 2007). 그래서 죽음준비교육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연결되어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준다. 삶의 의미는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으로(Frankl, 1963, Kim et al. 2005 재인용) 인생에 대한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해 봄으로써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여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죽음의 공포를 줄여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연령별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Becker, 200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이 연령별로 개발·운영 중에 있지만 아직 학교 교육의 정규과목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은 생애주기상으로 청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최상의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시기이고, 심리적으로 대학진학, 군입대, 취업 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배워야 하고,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기 위해 진정한 사랑을 찾는 시기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에 따른 사회의 역할기대를 내면화하여 성역할 정체감을 확립하여야 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직업 선택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Kim & Kwon, 2004). 급변하는 심리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과 체험이 필요하다. 대학생시기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여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

생이 죽음준비교육을 받는 것은 죽음상황에 직면하여 죽음불안을 줄일 수 있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도록 하여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대학생들의 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죽음준비교육은 이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자살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참여대상자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므로, 이들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죽음과 죽어감에 관련하여 죽음을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자살문제의 이해를 도와 효율적인 실무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교육이 될 것이다.

대인조력(human-touch)전공분야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Lee et al., 2005)하는 추세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준비교육(Baek et al. 2001; Jo & Kim, 2005)은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준비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사회복지현장에서 노인의 죽음과 죽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과 OECD국가 중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것을 감안할 때(Statistics Korea, 2010) 자살예방적 사회복지적 개입이 요구되므로 예비사회복지사를 위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이해와 자살문제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죽음준비교육은 꼭 필요한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여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있는 성찰을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 개인의 건전한 정신건강 확립과 더불어 예비사회복지사를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도입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죽음준비교육

20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생명, 죽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으나 죽음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그러나 현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주장한 Feifel와 Kübler-Ross와

같은 죽음학의 선구자들이 죽음인식운동을 시작하였다. Feifel(1959)는 죽음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The Meaning of Death”라는 책을 발간하였고, Kübler-Ross(1969)는 “On Death and Dying”을 발간해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여 많은 학자와 전문학술지가 간행되게 되었고, 이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죽음준비교육이 포함되었다(Becker, 2004; Wass *et al.* 1990). 미국 대학의 죽음교육과정은 1990년대에 거의 모든 의학, 간호학, 약학, 사회복지학에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교육을 기본 교과과정에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다(Wass, 2004). 우리나라에서는 대상별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과정이 많은 실정이고(Lee, 2003; Oh & Kim, 2009; Park, 2009)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은 없는 형편이다.

Corr *et al.*(2008)은 죽음준비교육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와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시민으로서 개인에게 공적 역할을 준비시키고, 전문적 직업적 역할을 준비하고 지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죽음과 관련된 태도에 대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며, 생애과정과 죽음관련쟁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과정을 인정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Wass(2004)는 죽음준비교육이 학생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서 자신의 불안을 다루고, 위기에 있는 사람들과 편안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며, 공감하도록 지원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International Work Group on Death, Dying, and Bereavement(1992)는 죽음준비교육의 목적을 개인적 발달과 책임있는 사회참여를 위해 교육적으로 기여하는 것이고,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환경에서 죽음, 죽어감, 사별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상과 같이, 죽음준비교육의 목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의 가치와 생활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적 참여를 권장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죽음준비교육은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에 차이가 있다(Lee, 2004). 즉, 각 세대에 해당하는 죽음준비교육, 죽음에 직면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죽음준비교육, 임종을 돌보는 호스피스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등에 따라 교육목적도 달라진다. 본 연구는 각 세대에 해당하는 죽음준비교육으로써 청년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은 외국에서는 학기 중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Becker, 2004). 대학

의 교과목은 죽음과 죽어감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그리고 공적인 정책문제들을 고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죽음을 고찰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고 훌륭한 죽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고민하도록 도와준다. Brabant와 Kalich(2008)은 대학수준 죽음준비교육의 선구자들이 가진 주요관심은 학생들이 가지는 죽음과 관련된 쟁점인 자살생각과 해결되지 않은 비탄을 돕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night와 Elfenbein(1993)은 대학생을 위한 죽음교육에서 죽음불안점수와 죽음의 의미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은 인생에서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비탄을 다루는 내용(Kramer, 1998; Ryan, 2007)과 사별보다는 죽음과 죽어감에 초점을 두는 교육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Napier, 2000).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지속적으로 죽음교육을 받아온 외국 사회복지전공 대학생과는 달리 죽음준비교육을 처음 받아보는 국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에게 상실과 비탄의 교육주제보다는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죽음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립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살예방에 관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죽음준비교육과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death orientation)은 죽음불안, 죽음두려움, 죽음위협감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Neimeyer & Dingemans, 1981). Thorson과 Powell(1988)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죽음불안요소와 죽음의 의미”의 연구에서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염려, 의미 등의 여러 요소가 혼합된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사용하였다.

Back *et al.*(2001)은 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 간호 강화를 실시한 결과 죽음의식의 사전 사후점수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호스피스 간호강화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Kim과 Lee(2009)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죽음준비교육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없음을 제시하였

다. Kim *et al.*(2005)는 일반대학생이 참여한 죽음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죽음태도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여 죽음교육이 죽음태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Jo와 Kim(2005)은 간호대학생을 위한 죽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죽음교육프로그램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죽음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죽음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Knight와 Elfenbein(199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해 죽음과 관련된 불안, 두려움, 의미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죽음불안,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태도 등의 죽음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죽음불안이 감소한 참가자는 죽음불안이 증가한 이들보다 죽음에 대한 더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ramer(1998)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수용의 정도, 개인적 전문적 상실에 대한 죽음준비교육을 학기 중에 실시하였는데,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통제집단보다 개인적 상실을 더 잘 다룰 수 있고, 슬픔과 죽어감을 더 지원할 수 있으며, 슬픔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더 좋아지고, 죽음수용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준비교육이 국내에서는 일반대학생이나 특정학과인 간호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국외에서는 대학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있어 학기 중에 사회복지전공 학생에게도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m과 Lee(2009)의 연구나 Knight와 Elfenbein(1993)의 연구는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죽음불안을 더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는 참여자 특성, 교육기간, 진행방법, 척도선택 등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염두에 두고 죽음준비교육 진행 전부터 연구참여자와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교육기간의 선정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진행방법에 신경을 써서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죽음준비교육과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죽기를 원하거나 자신을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자살을 심각

하게 고려해보는 것이다(Kim, 1993). Brent과 Kolko(1990)는 자살생각을 비특정한 것, 특정한 것, 의도가 있는 생각, 계획이 있는 생각으로 구분하여 자살생각의 심각성 수준을 나누기도 한다(Yook, 2002 재인용). Brabant와 Kalich(2008)은 대학의 죽음준비교육에서 자살생각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Statistics Korea(2010)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10대 자살률 보다 20대 자살률이 18.9%로 더 높게 나타났고,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생 역시 20대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자살에 대한 사회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20대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이 자살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Shin(2004)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자살태도가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자살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Oh(200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보고하였다. 수강생(총 39명)의 경우 학기 초에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명이고, 자살이 해결책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3명이었으나, 학기 말에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은 없었고, 자살이 해결책이라는 인식에 대해 1명만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학기 초에 비해 학기말에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의 자살생각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준비교육에서 자살관련주제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루어 참여자들이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익힐 수 있는가가 참여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에서 2회기에 걸쳐 죽음과 자살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자신의 자살충동경험발표, 인지치료적 자살예방방법,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을 때의 사망기 작성 등 다양한 죽음준비 교육활동내용을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전문대학 사회복지전공 2학년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후 죽음에 대한 태도,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유사실험조사인 비동일통제집단 사전사후조사설계를 활용하여, 죽음준비교육의 참여를 원하는 사회복지과 2학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실험집단(14명)과 통제집단(14명)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 점수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실시 후 실험집단 구성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인식변화를 질적 분석으로도 알아보았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5월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 사회복지과에 재학 중인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4년제가 아닌 2년제 전문대학의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2년제 전문대학 학생들이 4년제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린 나이에 클라이언트와 숙식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취업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죽음과 죽어감의 경험에 대한 죽음불안이 심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고, 1학년보다 일찍 취업하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죽음준비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한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실험집단의 연구참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통제집단은 2학년 동급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간에 탈락한 실험집단 참여대상자는 없었다.

3. 연구도구

1)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나를 찾아보기, 죽음이해하기, 죽음준비 및 삶의 가치 확인하기, 삶의 목표 정립하기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총 7회로 구성하였고 회기에 따라 100분에서 1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진행은 2011년 5월 17일에서 6월 8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다. 본 교육내용은 강의와 같은 교훈적 교육방식과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죽음에 관한 자신의 인식을 통찰해 볼 수 있게 하는 경험적 교

육방식을 접목하여 구성되었다. 한 가지 형태의 교육방법보다 두 가지 방법이 결합하였을 때 교육효과가 좋다고 보고되었다(Corr, 2002; Durlak, 1994; Knight & Elfenbein, 1993).

본 프로그램은 Kim과 Lee(2009), Shin(2004)의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을 기초하여 재구성하였다. Kim과 Lee(2009)의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은 죽음생각하기, 죽음과정과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간접체험, 죽음준비와 삶의 의미 찾기, 삶의 목표와 나의 가치 정립으로 진행되어 총 5회 매주 1회씩 150분이 소요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대학생 참여자의 생활만족도는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죽음불안과 자살문제를 이론적으로 단순하게 다루는 한계가 있었고, 총 프로그램의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총 5회에 지나지 않아 집중적인 죽음의 이해를 심화시키기에 애로점이 있었다. Shin(2004)의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은 간호학교수 3인과 심리학교수 1인이 5일간 30시간으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운영하였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강의와 토론이 병행하여 학생들의 활동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긍정적이었지만 교육진행과정에서 5일 동안 하루 6시간씩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프로그램 참가자 총 17명 중 탈락한 학생이 3명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은 이 두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죽음과 자살문제를 다루기 위해 4주 7회기의 과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강의와 토론 및 직접 활동을 중심으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이해, 자살문제이해와 자살 인지치료개입 내용,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사망기 작성 등의 활동을 삽입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와 같다.

죽음준비교육의 1회기와 2회기는 “나 찾아보기”의 주제로, 1회기에 집단구성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짧은 레크레이션 후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Kübler-Ross(1969)의 죽음적응단계를 강의하면서 죽음인식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도록 자극하였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기록지를 통해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별명으로 짓도록 하고,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과 내 가슴에 남아있는 가장 아픈 죽음의 기억을 회상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출생과 죽음에 연상되는 색과 단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인지상황을 명확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마치고 각자 자신의 기록내용을 발표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2회기에서는 서로의 별명을 확인하면서 시작하였고 출생에서 죽음까지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그려

과거와 현재의 삶을 점검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인생의 시기는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이용하여 색으로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료화하였다. 또한 인생그래프의 내용을 참여대상자에게 발표하도록 하여 자신과 타인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1회기·2회기에서 사용된 출생, 죽음, 인생시기를 색으로 표현한 것은 미술치료적 접근으로 색이 색마다 고유한 객관적 특성을 지녀 인간에게 개인적, 정서적 영향을 끼치므로(Chung, 1999) 참여자가 생각하는 바를 쉽게 잘 나타낼 수 있었다.

3회기와 4회기는 “죽음생각하기”의 주제로, 3회기에서

는 종교적 관점(유교, 불교, 그리스교)에서 본 죽음의 의미와 사후세계의 존재여부에 대해 강의하고 자신과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종교관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토론하여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죽음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 참여대상자가 느껴 본 자살충동의 경험을 발표하여 서로 공유하고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으로서 자살예방방법을 알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인지치료적 개입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4회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폐암말기 환자의 이야기를 휴먼다큐멘터리 사랑 DVD(“고마워요, 내사랑”)로 보면서 내가 다큐의 주인공이

〈Table 1〉 The Content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Session	Topic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y	methods
1st (150min)	finding myself	-Understanding Kübler-Ross's meaning of death -Introducing self and making a nickname -Finding the happiest moment in my life so far, and the most enduring painful memory relating to death -Word list and colors related to death	Lecture, Discussion
2nd (100min)		-Drawing a the life graph : contemplating life's journey from birth to one's future death and expressing all the separate moments using fitting colors	Activity, Presentation
3rd (150min)	thinking	-Sharing thoughts on death, and life after death in each religion -Understanding suicide and cognitive therapies associated with suicide prevention	Lecture, Presentation, Discussion
4th (150min)	about death	-Watching a video DVD related to the dying process -If you were the heroine in the video DVD? -Writing one's own obituary (suicide versus a death by desired means)	Animation, Lecture, Discussion
5th (120min)	preparing for death and	-If you have only one month to live, how would you spend your time until death? -List the most precious and most regrettable moments in your life	Presentation
6th (150min)	finding the meaning of life	-Planning my funeral :pairing with a partner and expressing the process of life and death through body movement	Background music, Active participation
7th (120min)	setting goals and values for life	-Establishing life goals and expressing them -Word list and colors related to death -Presenting your feeling and thought on death after the completion of the education program	Presentation

었다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었는지를 발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와 느낌은 어떤 것인지 발표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사망기 작성에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쳤을 때의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교하여 자살에 대한 인식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5회기와 6회기는 “죽음준비 및 삶의 가치 확인하기”의 주제로, 5회기는 자신의 인생이 한 달 남았다고 가정하여 자신의 삶에서 버리고 싶은 것과 꼭 하고 싶은 것을 작성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 용서하고 싶은 것과 화해하고 싶은 것을 작성하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참여대상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집단구성원이 큰 박수로 지지해 주었다. 6회기는 나의 장례식이라는 주제로 무용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을 초빙하여 참여대상자들에게 몸을 통해 인생과정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몸과 마음의 이완에서부터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활동,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춰 가졌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과 짝을 지어 표현하도록 하고 자신의 소감을 말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7회기는 “삶의 목표정립”의 주제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내용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였고 죽음준비교육을 마치면서 드는 소감을 발표하고 공유하였다. 참여대상자들은 죽음과 연상되는 단어와 색을 사용하여 1회기 때 가졌던 죽음의미를 비교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대상자들이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지변화를 미술치료기법 중 색 선택에 기반하여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본 회기의 발표내용을 참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여 본 교육의 질적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2) 죽음에 대한 태도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Templer(1970)와 Boyar(1964)가 개발한 죽음불안도구를 결합하여 미국의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Thorson과 Powell(1988)이 수정한 다차원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5문항의 참거짓의 이분식으로 구성되었고, 요인분석의 결과 7개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4점 척도로 평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신체소멸불안(4, 18, 19, 21, 22, 25 문항), 내세불안(2, 3, 20문항), 고통불안(1, 10, 15문항), 능력상실불안(6, 7, 9, 11, 17문항), 시신처리불안(14, 24문항), 죽음종말불안(13, 16문항), 질병불안(8, 23문항)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과 염려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죽음에 대한 태도의 Cronbach's $\alpha=.914$ 로 높게 나타났다.

3)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심리적 측정상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Reynolds(1988)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인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가 가진 중복문항과 응답시간을 고려하여 총 17문항을 사용하였고, 자살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0점)에서 ‘거의 매일 생각한다’(6점)까지의 7점 척도로 된 것을 참여대상자의 측정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일 생각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의 합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744$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분석은 양적 효과분석만으로는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여 온전한 효과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구술 등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고 적절하다고 본다(Heuser, 1995; Wass, 2004). 자료수집방법은 죽음준비교육의 첫 회기인 5월 17일과 마지막회기인 6월 8일에 사전사후조사인 양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마지막 회기의 발표내용을 녹취하여 질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양적 효과분석을 위해 SPSS 15.0을 이용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하였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위 7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가 적어서 비모수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X^2 -검증을 사용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과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태도의 사전 사후 변화량의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각각의 프로그램 실시 후 개입전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Wilcoxon-signed ranks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효과분석을 위해 마지막 7회기의 죽음준비교육에서 죽음의미, 삶의 목표, 교육소감의 발표내용을 녹취하여 Stauss와 Corbin(1990)의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녹취록을 읽으면서 발견되는 주제를 찾고 다시 이 주제를 견지하면서 자료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견해내어 주제발견에 유용하므로(Padgett, 1998), 마지막회기의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죽음, 삶, 그리고 자살에 관한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의미화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정하였다. 먼저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의 동질성여부를 검정한 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은 실험집단 14명, 통제집단 14명으로 총 28명이다. 연령대는 20대로 참여 대상자 모두 동일하며 두 집단 간의 동질성검정 결과는 <Table 2>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 종교, 생활수준, 건강수준, 가까운 사람의 죽음경험 등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이 동질하여 비교 가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통계방법인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제시한 측정된 결과, 전체 죽음에 대한 태도와 하위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자살생각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검사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어 두 집단이 서로 비교 가능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효과

1) 죽음준비교육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 비교

죽음준비교육의 사전·사후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s	Categories	Exp.(n=14) n(%)	Con.(n=14) n(%)	Total(n=24) n(%)	X ²	df	p
Age	Male	7(25.0)	5(17.9)	12(42.9)	.583	1	.704
	Female	7(25.0)	9(32.1)	16(57.1)			
Religion	Yes	7(25.0)	7(25.0)	14(50.0)	.000	1	1.000
	No	7(25.0)	7(25.0)	14(50.0)			
Economic level	Low	1(3.6)	3(10.7)	4(14.3)	2.000	2	.368
	Medium	10(35.7)	10(35.7)	20(71.4)			
	High	3(10.7)	1(3.6)	4(14.3)			
Health condition	Moderate	2(7.1)	5(17.9)	7(25.0)	2.345	2	.310
	Good	9(32.1)	8(28.6)	17(60.7)			
	Excellent	3(10.7)	1(3.6)	4(14.3)			
Death of those close to you	Yes	9(32.1)	9(32.1)	18(64.3)	.000	1	1.000
	no	5(17.9)	5(17.9)	10(35.7)			

*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 Wilcoxon-signed ranks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살생각은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더 낮은 대학생이 11명이고, 더 높은 경우는 3명이고, 같은 경우는 없으며, $z=-2.357(p<.05)$ 로 나타나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전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더 낮은 대학생이 8명, 더 높은 이들은 6명, 같은 경우는 없으며 $z=-1.54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요인들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분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통제집단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그 하위요인, 자살생각에 대한 사전사후점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 비교 및 질적 분석

죽음준비교육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을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사후검사에서 $z=-2.370(p<.05)$ 이고, 하위요인 중 신체소멸불안과 능력상 실불안의 z 값이 각각 $-1.987(p<.05)$, $-2.814(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죽음준비교육 참여 후에 죽음태도 등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처음에는 죽음을 무서움, 두려움, 피와 연관시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종결할 때에는 죽음을 편안하게 느꼈다. 즉 “1회기 때는 죽음색이 회색이었는데 연두색으로 변했어요. 회색은 막연하고 어두운 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 봐서 편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에서 연두색했어요(김슈).”로 진술하였다. 죽음을 생명의 연장으로 인식하여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가는 것처럼 문이 열리면 완전 꽃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활력소)., 저는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어요.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Death Orientation and Suicide Idea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Cluster	Mean Rank	U	Z	p
Death Orientation	Exp.	15.14	89.00	-.414	.679
	Con.	13.86			
anxiety over physical extinction	Exp.	15.86	79.00	-.877	.381
	Con.	13.14			
anxiety about the afterlife	Exp.	13.71	87.00	-.515	.607
	Con.	15.29			
fear of pain	Exp.	15.89	78.50	-.908	.364
	Con.	13.11			
anxiety over losing abilities	Exp.	15.57	83.00	-.695	.487
	Con.	13.43			
anxiety about the cleaning and preparing of one's dead body	Exp.	15.64	82.00	-.803	.422
	Con.	13.36			
anxiety about one's demise	Exp.	14.96	91.50	-.330	.741
	Con.	14.04			
anxiety over disease	Exp.	13.21	80.00	-.849	.396
	Con.	15.79			
Suicide Ideation	Exp.	14.29	95.00	-.138	.890
	Con.	14.71			

*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Table 4〉 Death Orientation and Suicide Ideation before and after Death Education by Groups

Variables		Exp.					Con.				
		N	Mean Rank	Sum of Rank	Z	p	N	Mean Rank	Sum of Rank	Z	p
Death Orientation	Negative Ranks	8	9.63	77.00	-1.540	.123	6	7.25	43.50	-.565	.572
	Positive Ranks	6	4.67	28.00			8	7.69	61.50		
	Ties	0					0				
anxiety over physical extinction	Negative Ranks	9	8.61	77.50	-1.574	.115	5	6.40	32.00	-.948	.343
	Positive Ranks	5	5.50	27.50			8	7.38	59.00		
	Ties	0					1				
anxiety about the afterlife	Negative Ranks	8	7.56	60.50	-1.067	.286	7	7.07	49.50	-1.484	.138
	Positive Ranks	5	6.10	30.50			4	4.13	16.50		
	Ties	1					3				
fear of pain	Negative Ranks	8	7.50	60.00	-1.654	.098	5	4.60	23.00	-.466	.641
	Positive Ranks	4	4.50	18.00			5	6.40	32.00		
	Ties	2					4				
anxiety over losing abilities	Negative Ranks	9	8.11	73.00	-1.934	.053	7	4.21	29.50	-1.126	.260
	Positive Ranks	4	4.50	18.00			6	13.25	61.50		
	Ties	1					1				
anxiety about the cleaning and preparing of one's dead body	Negative Ranks	9	5.89	53.00	-1.833	.067	5	5.70	28.50	-.855	.392
	Positive Ranks	2	6.50	13.00			7	7.07	49.50		
	Ties	3					2				
anxiety about one's demise	Negative Ranks	5	5.90	29.50	-.315	.753	3	3.00	9.00	-.447	.655
	Positive Ranks	6	6.08	36.50			2	3.00	6.00		
	Ties	3					9				
anxiety over disease	Negative Ranks	8	7.56	60.50	-1.062	.288	8	6.13	49.00	-.248	.804
	Positive Ranks	5	6.10	30.50			5	8.40	42.00		
	Ties	1					1				
Suicide Ideation	Negative Ranks	11	8.18	90.00	-2.357	.018	6	7.42	44.50	-.070	.944
	Positive Ranks	3	5.00	15.00			7	6.64	46.50		
	Ties	0					1				

*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봄이 되면 꽃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듯이 죽음을 녹색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비타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삶이 더 의미있고 목적을 갖게 해주어서 죽음프로젝트가 아니라 희망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천사). 처음에는 죽음이 무섭고 아프면 피가 나서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죽고 나서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아서 희망적으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꼭필요).”의 진술을 통해 죽음을 다른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죽음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 남은 시간이 소중한 여겨져서 주어진 시간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게 느껴졌어요(김슈). 죽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지금의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죽음도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고, 지금 배운 것을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김궁정).”로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이 가장 우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주위사람

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억만장자).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아나운서).”의 진술을 통해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살생각의 사후점수비교에서 $z=-2.073(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죽음준비교육 참여 후에 자살생각 등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자살문제에 대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 힘으로 도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부자).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꼭필요).”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참여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줄어들었고 자살생각이 감소하였으므로 본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

(Table 5) Effect of Death Orientation and Suicide Ideation

Variables	Cluster	Mean Rank	U	Z	p
Death Orientation	Exp.	10.82	46.50	-2.370	.018
	Con.	18.18			
anxiety over physical extinction	Exp.	11.43	55.00	-1.987	.047
	Con.	17.57			
anxiety about the afterlife	Exp.	13.21	80.00	-.840	.401
	Con.	15.79			
fear of pain	Exp.	12.50	70.00	-1.311	.190
	Con.	16.50			
anxiety over losing abilities	Exp.	10.18	37.50	-2.814	.005
	Con.	18.82			
anxiety about the cleaning and preparing of one's dead body	Exp.	11.82	60.50	-1.790	.074
	Con.	17.18			
anxiety about one's demise	Exp.	16.21	74.00	-1.190	.234
	Con.	12.79			
anxiety over disease	Exp.	12.54	70.50	-1.291	.197
	Con.	16.46			
Suicide Ideation	Exp.	11.29	53.00	-2.073	.038
	Con.	17.71			

*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종결시에 죽음을 편안하게 느끼고, 생명의 연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또 다른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죽음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었으며, 자살문제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양적 질적 효과분석을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식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2학년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죽음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목표를 정립시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자 하였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죽음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히 수용하고 자살의 부정적인 측면을 각인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지원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죽음준비교육 실시 후 실험집단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통제집단에 비해 줄어들었고 자살생각은 감소하여 죽음준비교육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죽음을 편안함, 생명의 연장, 또 다른 희망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삶에 대한 감사와 자기만의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자살에 대한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에게 실시한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감소시켰다는 결과는 Baek *et al.*(2001), Kim *et al.*(2005), Jo와 Kim(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Kim와 Lee(2009)와 Knight와 Elfenbein(1993)의 선행연구에 대한 한계를 반영하여 예비 사회복지사를 위한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큐시청, 그리고 사망기작성, 죽음준비, 나의 장례식 등 직접적인 참여활동의 영향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질적 분석에서도 죽음을 무서움, 두려움 등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생명의 연장, 희망 등의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되어 부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죽음과 죽어감에 직면하였을 때 죽음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자살충동 및 예방과 관련된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자살생각이 감소되었다는 결과는 Oh(2006)의 결과를 지지한다. 앞서 언급한 Shin(2004)의 연구한계를 반영하여 자살관련주제에 대해 집중적이고 실제적인 자살충동발표, 자살예방개입방법, 자살로 사망했을 때의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를 비교하는 활동을 삽입하여 예비사회복지사를 위한 죽음준비교육을 구성하여 자살생각이 감소되었다고 사료된다. 죽음준비교육 내의 3회기에 참여대상자들 중 3명이 군대에서, 2명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살 충동을 심하게 느꼈다고 발표하여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자살문제에 대해 안전지대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신과 타인의 자살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지치료적 개입을 통해 자살예방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4회기에 자신의 죽음을 자살로 마무리한 사망기와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사망기 작성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죽음이 아닌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실들을 인식하게 하여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인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의 자살관련 3회기와 4회기를 통해 자살충동발표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자살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자살예방개입방법을 익힐 수 있어서 본 죽음준비교육에서 자살예방교육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분석은 양적·질적 방법을 활용한 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 효과분석을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검정하였고, 질적 방법을 통해 생생한 참여대상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서 죽음에 대한 인식변화와 자살예방에 대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질적 방법을 통합한 연구방법의 강점을 살려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이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대학마다 사회복지학과나 그 유사학과에서 죽음준비교육을 도입한다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적합한 예비사회복지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죽음이란 상황에 직면해 죽음 공포나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비사회복지사로서는 졸업 후 직장 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죽음경험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이에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준비교육은 실천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며 졸업 전에 받아야 할 의무사항이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자살문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자살생각 수준을 점검하고 타인의 자살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에 자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죽음준비교육의 구성에 있어서 교훈적 방식과 경험적 방식을 혼용하여 참여대상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죽음이란 강의를 통해 종교관과 사후세계의 논의를 이끌어내어 참여대상자에게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줄이도록 유도하였다. 참여자의 자살충동발표와 자살에 대한 인지치료방법에 대한 강의를 적절히 접목되어 참여대상자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대구지역의 특정 전문대학 사회복지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의 세팅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죽음준비교육이 예비사회복지사의 죽음에 대한 불안한 태도를 줄이고 자살생각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를 통해 다른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교육내용에서 사후세계와 자살문제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는 내용의 보완작업이 필요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죽음과 죽어감 과정의 상실, 비탄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인 개입방법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죽음준비교육,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죽음에 대

한 태도, 자살생각

REFERNECES

- Baek, S. H., Lee, M. A., & Kim, I. H. (2001). A Study on Change in Death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 Nurses-comparison of pre and post hospice care cla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8(3), 357-365.
- Basu, S. & Heuser, L. (2003). Using service learning in death education, *Death Studies*, 27(10): 901-927.
- Becker, C. (2004). Death Education and religion in schools and modern socie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 3-22.
- Boyar, J. I. (1964). The construction and partial validation of a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the fear of dea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 Brabant, S. & Kalich, D. (2008). Who enrolls in college death education courses? A longitudinal study. *Omega*, 58(1), 1-18.
- Chung, Y. J. (1999). Die pädagogische Kunsttherapie als anthroposophischer Ansatz, *Zeitschrift für pädagogische Forschung*, 4(1), 149-163.
- Corr, C. A. (2002). Teaching a college course on children and death for 22 years: A supplemental report. *Death Studies*, 26(4), 596-606.
- Corr, C. A., Nabe, C. M., & Corr, D. M., (2008). *Death and dying, life and living*. Belmont, CA: Wadsworth/Cengage Learning.
- Durlak, J. A. (1994). Changing death attitudes through death education.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243-260.
- Feifel, H. (1959). *The meaning of death*. New York: McGraw-Hill.
- Heuser, L. (1995). Death education: A model of student-participatory learning, *Death Studies*, 19(6), 583-590.

- International Work Group On Death, Dying, and Bereavement. (1992). A statement of Assumptions and principles concerning education about death, dying, and bereavement. *Death Studies*, 16(1), 59-65.
- Jo, H. J., & Kim, E. S. (2005). The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8(2), 163-172.
- Kee, Y. H. (2007). *Educational Gerontology*. Seoul: Hakjisa.
- Kim, D. B. & Kwon, J. D. (2004). *Human Behavior Theory and The Social Environment practice*. Seoul: Hakjisa.
- Kim, E. H., & Lee, E. J. (2009). Effects of a Death Education Program on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1), 1-9.
- Kim, H. C. (1993). Adolescents Suicide : Psycho - social Factors and Preven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 167-181.
- Kim, S. H. 2002. An Educational-Philosophical Meaning of Death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5, 205-223.
- Kim, S. N., Choi, S. N., Lee, J. J., & Sin, K. I. (2005). Effects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5, 205-223.
- Knight, K. H. & Elfenbein, M. H. (1993). Relationship of death education to the anxiety, fear, and meaning associated with death. *Death Studies*, 17(5), 411-425.
- Kramer, B. J. (1998). Preparing social workers for the inevitabl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a course on grief, death, and los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4(2), 211-228.
- Kü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 Lee, H. S. et al. (2008).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Suicide*. Seoul: Hakjisa.
- Lee, J. Y. (2004). The Youths' Perception of Death and The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 39-56.
- Lee, L. J. (2003).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of Death Education for the Ag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Lee, Y. J. Jo, G. H., & Lee, H. J. (2005).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Death on High-Touch Major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3(1), 113-124.
- Napier, L. (2000). For ever beyond. pp. 159-175. in *Practice and Research in Social Work: Post-Modern Feminist Perspectives*, edited by B. Fawcett, B. Featherstone, J. Fook, and A. Rossiter. London: Routledge.
- Neimeyer, R. A. & Dingemans, P. (1981). Death orientation in the suicide intervention worker. *Omega*, 11, 15-23.
- Oh, J. T. & Kim, C. G. (2009).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Attitude toward Death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1), 51-69.
- Oh, J. T. (2006). Instruction for Protecting of Suicide. *Issues in East-Asian Philosophy*, 15, 230-246.
- Padgett, D. K. (198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Tae Kyun Yoo Translated (2001). Seoul: Nanam Public
- Park, J. E. (2009).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the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of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8, 79-109.
- Puolimatka, T. & Solasaari, U. (2006). Education for death.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2), 201-213.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Ryan, M. (2007). Teaching loss and grief to social work students: Some reflections. *Advances in Social Work and Welfare Education*, 9(1), 69-81.
- Shin, S. J. (2004). The Effect of a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on Attitude for Death and Suicide of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Statistics Korea. (2010). *The Cause-Specific Death Statistics*

- 2009.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Templer, D. (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 165-177.
- Thorson, J. A. & Powell, F. C. (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5), 691-701.
- Wass, H. (2004). A perspective on the current state of death education. *Death Studies*, 28(4), 289-308.
- Wass, H., Miller, D., & Thornton, G. (1990). Death education and grief/suicide intervention in the public school. *Death Studies*, 14(3), 253-268.
- Yook, S. P. (2002). Exploration of Suicide related Variables and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접 수 일 : 2012. 03. 07.
수정완료일 : 2012. 04. 17.
게재확정일 : 2012. 04. 26.